

2023년 1월 17일 (화)

- 7:00 기상
- 아침식사
- 9:10 학원 도착

- 어제 일기쓰기
- 점심식사
- 17:00 학원 끝
- 던칸도너츠 가프티콘 사용
- 근로하러 흥대로 이동

- 18:30 근로 시작
- 저녁식사
- 통공
- 21:00 근로 끝
- 22:00 집 도착
- 일기쓰기
- 24:00 자자.. (수고했어 오늘도^^..)

2023년 1월 18일 (수)

- 7:00 기상
- 아침식사
- 9:10 학원 도착

- 어제 일기쓰기
- 점심식사
- 17:00 학원 끝
- 근로하러 흥대로 이동

- 저녁식사
- 18:30 근로 시작
- 일기쓰기
- 21:00 근로 끝
- 22:00 집 도착
- 24:00 자자..

★ Diary



Diary

+ :: AI 기능은 '스페이스 키', 명령어는 '/' 입력

MONTHLY +

날짜 없음(1) 필터 정렬 🔍 📅 ... 새로 만들기 ▾

2023년 1월

< 오늘 >

일	월	화	수	목	금	토
1월 1일	2	3	4	5	6	7
	오늘은 갓생별 부듯해 🥰	박벤하루!! 부듯해 🥰 일? 공부? 걔이군	바쁘다 바빠 현대사회!! 좋아 🥰 혼자	평생과 일 왜이리 많아..? 좋아 🥰 지.쳐	생각을 멈추고 싶어 생각이 많아 🥰 인생 꼬있다~ 혼자	결혼? 쏘쏘 🥰 생각 많아 🥰 무기력 혼자
8	9	10	11	12	13	14
☆ 너가 생각나.. 생각이 많아 🥰 무기력해 🥰 기 보고싶어 혼자	☆ 매나 정수영 쏘쏘 🥰 피곤해 🥰 시간 순삭.. 혼자	☆ 열풍이 피곤해 🥰 지각을하지마라!! 혼자	☆ 무시원하게 아자! 피곤해 🥰 힘들어 🥰 혼자	☆ 콘서트 가고싶었는데.. 피곤해 🥰 속상해 🥰 송애앙.. 혼자	☆ 수고했어 오늘도! 부듯해 🥰 피곤해 🥰 하루하루 열심히 혼자	☆ 토요일이다!!!! 행복해 🥰 쉬는날 반가워ㅠㅠ 소꿉친구
15	16	17	18	19	20	21
♡ 반성 슬퍼 🥰 우울해 🥰 혼자	♡ 나태해지기 금지! 피곤해 🥰 생각이 많아 🥰 우울 보고싶어 혼자	♡ 1년후 편지 도착 생각이 많아 🥰 혼자	♡ 힘들다! 이겨내!!^^ 피곤해 🥰 힘들어 🥰 혼자	♡ 오랜만의 독서 힐-링 신나 🥰 부듯해 🥰 혼자	♡ 자기관리 생각이 많아 🥰 슬퍼 🥰 혼자	♡ 너무아파.. 힘들어 🥰 아파 🥰 혼자
22	23	24	25	26	27	28
♡ 코로나는 아니겠지..? 아파 🥰 혼자	♡ 아프다.. 아파 🥰 혼자	♡ 코로나인걸까~ 아파 🥰 혼자	♡ 코로나 확진이다.. 아파 🥰 혼자	♡ 하루하루 순삭:(아파 🥰 혼자	♡ 생각을 멈추자 생각이 많아 🥰 무기력해 🥰 혼자	
29	30	31	2월 1일	2	3	4
♡ 김경원?? 쏘쏘 🥰 혼자	♡ 의외다 이녀석 쏘쏘 🥰 신나 🥰 혼자	♡ 멘붕 일상복귀@@ 힘들어 🥰 피곤해 🥰 혼자	♡ 슬퍼하지마 이겨내. 생각이 많아 🥰 우울해 🥰 외로 혼자	♡ IT 우짜면 조치..? 생각이 많아 🥰 혼자	♡ 컨디션 난조 힘들어 🥰 피곤해 🥰 아파 🥰 혼자	♡ 데이트ㅋㅋ 슬픈 🥰 행복해 🥰 신나 🥰 썸남

꾸준히 기록하는 일상 - 일기 & To Do List

캐릭터 디자인

팡 팡



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을 즐깁니다!

이모티콘 제작



1.png
30.7KB



10.png
34.4KB



11.png
30.8KB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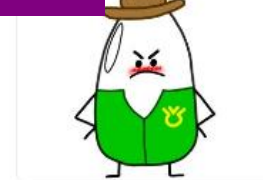
12.png
52.9KB



4.png
33.3KB



5.png
35.0KB



6.png
28.2KB



7.png
30.7KB



5.png
35.0KB



6.png
28.2KB



7.png
30.7KB




8.png
38.0KB

One step at a time :

그리고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.
 "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. 알겠니? 다음에 던져
 될 걸음. 다음에 쉬게 될 호흡. 다음에 하게 될 비밀만 생각해야
 하는 거야.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."
 그리고는 다시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한 다음 이렇게
 덧붙였다.
 "그러면 일을 하는 게 즐겁지. 그게 중요한 거야. 그러면 일을
 잘 해 낼 수 있어. 그래야 하는 거야."
 그리고는 다시 한 번 오랫동안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했다.
 "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쫓았다는
 것을 깨닫게 되지.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, 숨이 차지
 도 않아."
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렇게 말했어.
 "그게 중요한 거야."
 또 한 번은 이런 이

나는 오늘 걱정했다.
 나는 오늘
 행복하기로 걱정했다.
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에
 감사하기로 걱정했고,
 오늘 마주하는 모든 풍경에
 감탄하기로 걱정했다.
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
 나를 흔들지 못하도록
 나는 오늘 행복하기로

가는 사람
 아하고 거기에 빠져
 고 싶긴 하지만, '내가 그런 사
 나를 부정할 필요가 있을까? 그냥 이런 나
 되지 않을까?'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 저는
 책에 집착하기도 하고요. 하지만 책은 말하기가 힘
 든 게, 사람들이 좀 재수 없어하는 거 같아요. 거짓말
 이라고 생각하는 거 같고. 취미가 뭐예요? 물어와서
 책 읽는 거요. 이러면 "어, 여기 면접 자리 아닌데" 이
 도 하고



초, 중, 고, 대학교까지! 다독상을 농친적 없는 독서광입니다☺

무덤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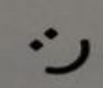
트라우마

내가 처음 사랑한 얼굴을 잊은 뒤에도 몇 번 더 사
 랑을 했다. 사랑한 얼굴이 들어가고 여러 기억이 뒤
 죽박죽 섞이자 눈이 세 개, 이마에 코가 달린, 입이
 없는 그런 얼굴만 떠올라 결국 한 명의 사람을 떠올
 리지 못했다. 느낌과 감정만 남은 게 마치 영화를 보
 고 나온 직후 같았다.

생활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니 뭐니 하는 도덕 따위에는 별로
 관심이 없습니다. 저한테는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는, 혹은 살
 아갈 자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이야말로 난해한 존재인
 것입니다. 인간은 끝내 저한테 그 요령을 가르쳐주지 않았습
 니다. 그것만 터득했다라면 제가 이렇게 인간을 두려워하면서
 필사적인 서비스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.
 인간의 삶과 대립되어 밤이면 밤마다 지옥 같은 괴로움을 맛
 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. 즉 제가 머슴과 하녀들의
 그 가증스러운 범죄조차 아무한테도 호소하지 않았던 것은
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도 아니고, 또 기독교적 박애주의 때문
 도 아니고, 인간이 저 요조에게 신용이라는 겹질을 단단히 단
 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부모님조차도 제가 이해할
 수 없는 면을 가끔 보이셨으니까요.

마음을 비운다는 게 아주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, 결국
 은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다. 내려놓고 과정을 그저 즐길
 줄 아는 이가 되는 것. 내가 지금 전 것에 대해 충분히 인
 정하는 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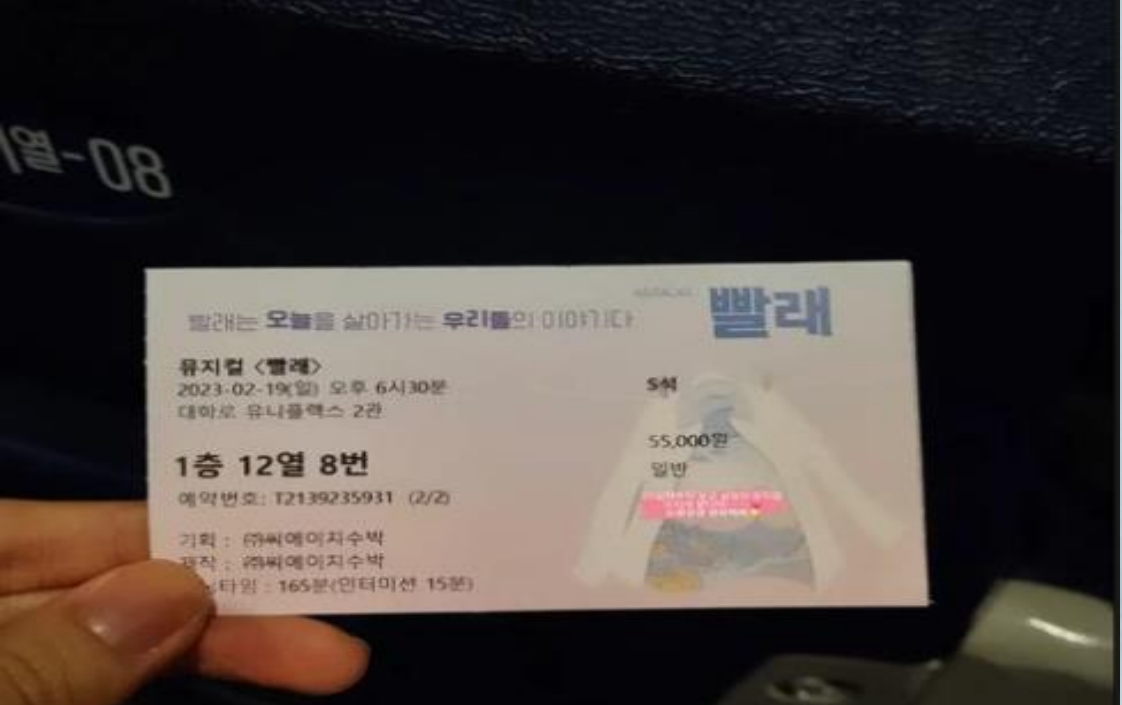
기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.





무적LG!! 야구장 직관 가는 것을 좋아해요~!





Music Is My Life~! 노래 듣기, 악기연주 모두 좋아해요!!

